

“정성 한 포기, 사랑 한가득” 신전면 용정마을 김장 이야기

강진군 신전면 주민 24명, 김치 420L 담가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손길 전해

강진군 신전면 용정마을에서 지난 16일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 및 외부 지역주민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 김치 800포기를 담으며 이 중 420리터(160L 20통, 260L 4통) 분량이 신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신전면 지역사회발전협의회에 각각 기부돼 관내 어려운 이웃과 각종 행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김장 나눔 행사는 이용구 용정마을 이장장과 최윤희 새마을부녀회장을 중심으로 기획·추진됐으며 참여자 전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정성스럽게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의 손길을 이어갔다.

마을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배추 다듬기, 양념 섞기,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손수 수행했으며, 김치를 담그는 동안 웃음과 정겨운 대화가

오가며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렇게 완성된 김장김치는 각 가정과 복지사각지대에 전달되며, 이웃들의 겨울 식탁을 풍성하게 해줄 예정이다.

이용구 용정마을장은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마을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여 나눔을 실천해왔다”며 “정성스럽게 담긴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의 밥상에 따뜻한 반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희 새마을부녀회장은 “여럿이 힘을 합쳐 만든 김치라 그런지 더 맛있고, 마음까지 뿌듯하다”며 “정성이 담긴 김치 한 포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진희 신전면장은 “용정마을은 평소에도 공동체 문화가 활발하고 주민 간 유대가 깊은 마을”이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웃을 돕는 모습에서 진정한



지역사회 복지의 가치를 느낀다. 이런 나눔의 문화가 신전면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김장 나눔은 단순한 기부 활동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연대감과 이웃 사랑을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용정마을 주민들의 손길로 만들어진 따뜻한 김장김치는 올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마음의 온기를 함께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주은행, 크리스마스 앞두고 지역 아동에 따뜻한 선물 전달 ‘2025 크리스마스 산타 오셨네’ 행사 개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16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역 아동들을 위한 ‘2025 크리스마스 산타 오셨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변정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지원 대상 대표 가정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크리스마스 산타 오셨네’ 행사는 연말 연시 소외되기 쉬운 지역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광주은행이 매년 이어오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의 따뜻함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와 전남의 추위를 받아 겨울철 난방에 취약한 가정의 아동·청소년 50명 이상 선정됐으며, 광주은행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와 함께 총 1천만 원 상당의 겨울 의류를 지원했다.

/이승원 기자

함평군공무원노조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기탁

전남 함평군공무원노조가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전하고 있다.

함평군은 16일 “함평군공무원노조가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은 노사협력 강화와 협동 워크숍 등을 통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상생하는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조직 내 갈등 해소와 소통 강화,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

에서 받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정안식 노조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조합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함평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함평군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함평군공무원노조 조합



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부영그룹, 2026년 달력 입주민·학교 등에 선물 “매년 달력 선물… 사랑 가득한 새해가 되기 바라는 마음”

부영그룹은 전국 부영 임대 아파트 8만여 세대 입주민들에게 2026년 달력을 선물했다. 또, 입주민 외에도 부영그룹이 그동안 교육시설을 기부한 전국 101곳의 초·중·고교 및 대학교에도 달력 총 8,080부를 배포했다.

부영그룹은 매년 연말, 다음해의 달력을 부영 아파트 입주민과 학교 등 시설에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달력을 하루하루 일상을 계획하며 한 해를 다 같이 함께 잘 살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일상속 실사용도가 높은 생활용품으로 입주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특히 최근 달력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연말을 앞두고 전해지는 달력 선물에 대한 반응도 더욱 커지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입주민들께서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고, 새해를 활기차게 맞이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달력을 전하고 있다”며 “부담 없는 선물로 입주민들과 정(情)을 나누며 소중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입주민 모두가 사랑이 가득한 일상으로 새로운 한 해를 꾸려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건강보험 임신·출산 관련 제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난임 시술
(보조생식술)
급여제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전남지방우정청, 백혈병 소아암 환아 대상 후원 직원 자발적 참여로 모은 후원금과 헌혈증서 기부 ‘훈훈’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동주)은 16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를 통해 후원금 200만 원과 함께 헌혈증서 25매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전남지방우정청 및 소속 우체국에서 매월 모금 중인 직원 성금과 지난 10월에 실시한 릴레이 ‘사랑의 헌혈’ 행사를 통해 모은 헌혈증서로, 모두 자발적인 직원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부된 헌혈증서와 후원금은 한국백혈

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를 거쳐 지역 환아들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동주 청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환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전남지방우정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지방우정청은 매월 모금된



직원성금을 활용하여 저소득가정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등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오권철 기자



아름다운 화순, 자원봉사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6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2025 화순군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봉사자대회는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가족,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화순, 자원봉사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원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사랑 실천하여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봉사

자 자원봉사 단체가 군수 표창을 받았다.

개인 부문 수상자는 △류정훈(꿈나무기지원봉사센터) △송미숙(고향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조경자(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효숙(한국부인회화순군지회) △임호성(화순동심협력봉사단) △안정수(신아행복나눔봉사단) △송행숙(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업소) △윤덕옥(남도사랑화순군봉사단) 등 8명이 수상했다.

단체 부문에서는 재난 피해 복구 활동에 앞장서 온 △화순군외용소방대연합회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온 케이워터기술(주)영성유역본부가 수상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자원봉사자 한분 한분의 따뜻한 손길이 모여 아름다운 화순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문화가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담양축협 임직원 50명, 고향사랑기부로 마음 모았다

담양군에 500만 원 기탁... 세 번째 나눔 이어가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담양축협(조합장 정을성) 관계자들이 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담양축협 임직원과 관계자 50여 명이 뜻을 모아 추진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다.

정을성 담양축협 조합장은 “지역과 함

께 성장해 온 협동조합으로서, 이번 기부가 지역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축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며 “기탁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담양/이종욱 기자